



이 진 혁
안양만안경찰서 근무

흥기위협범 보고도 제압 안 했더니요?

저는 이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선지 9개월 된 새내기 순경입니다.

2012년 9월 중순, 오후 8시에 출근하여 밤을 새고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길, 아침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진이 빠진 채로 전철의자에 앉아 퇴근길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여대생에게 어떤 남자가 접이식 칼을 슬그머니 꺼내 들이밀자 여대생이 벌떡 일어나 ‘이 남자 칼을 가지고 있어요’라며 울먹였고, 칼을 소지한 범인은 다른 칸으로 황급히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저 남자가 전철 내 다른 칸으로 이동하여 칼부림을 부릴 수도 있겠다, 무조건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그 범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112에 전화하여 다른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범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덮쳐서 검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다른 칸 내 승객은 범인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대생을 위협한 상황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어린 딸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입산부, 아버지의 옆에 기대 곤히 자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 등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온하게 있는 승객들이 눈에 들어왔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검거하다가 실패하면 이 범인이 흥분하여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중 범인은 남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아 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는 2~3분,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범인을 바로 지목하고 합세하여 안전하게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지하철 사건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던 중 언론사 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던 기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가 있었던 다음날 그 상냥했던 기자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은 “지하철서 여성승객 흥기 위협...경찰 보고도 제압 안 해”였고,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어리다면 어린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 내용은 지극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나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부모님의 지인분들, 또한 직장 동료들은 괜찮다고 위로를 했지만 ‘그 기사를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도 못했고, 기자는 인터뷰시 의문점이 충분히 있을만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나, 이를 “해명했다”고 하는 등 그 기사를 읽고 난 뒤에는 기자에 대한 증오심과 자괴감, 절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언론의 피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절망감에 빠져있었을 때, 무작정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 동료에게 상담해보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 서류도 미비한 채로 접수를 시켰으나 언론중재위원회 담당 직원분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고쳐야 할 부분을 친절히 알려주셨으며,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계시라”는 작은 한마디의 위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기일이 확정되고,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답변하여야 할 것들과 언론사 측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리스트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심리기일이 잡힌 날, 언론사 측에서는 기자와 함께 해